

2021

국내외 규제 및 시장동향 분석보고서

Vol. 01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KOTITI시험연구원 소비재인증사업본부에서 발간하는 국내외 규제 및 시장동향 분석보고서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법규 변경사항 및 이슈사항 모니터링을 통하여 섬유 및 소비재 관련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CONTENTS

01 | 월간 주요 이슈 4

02 | 국내 규제 법령 및 이슈 7

03 | 국내 KC 관련 법령 및 이슈 13

04 | 해외 규제 법령 및 이슈 24

부록 | 관련 연락처 34

01

월간 주요 이슈

- 가구 소비자 피해 절반은 온라인 구매 (조선일보)

월간 주요 이슈

조선일보 (2020.12.24.)

가구 소비자 피해 절반은 온라인 구매

최종석 기자

입력 2020.12.24 06:05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으로 가구를 사는 사람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가구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은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는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괄호 안은 신청 비율. 단위:건

의자류	침대류	책상·테이블류	장롱류	세트 가구류	기타가구	계
1083(28.5%)	932(24.6%)	604(15.9%)	422(11.1%)	227(6%)	526(13.9%)	3794(100%)

※의자류: 소파, 의자, 벤치 등/ 기타가구: 싱크대, 문갑, 화장대

자료=한국소비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가구는 의자(28.5%)였다. 이어 침대(24.6%), 책상·테이블(15.9%)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현황 괄호 안은 신청 비율.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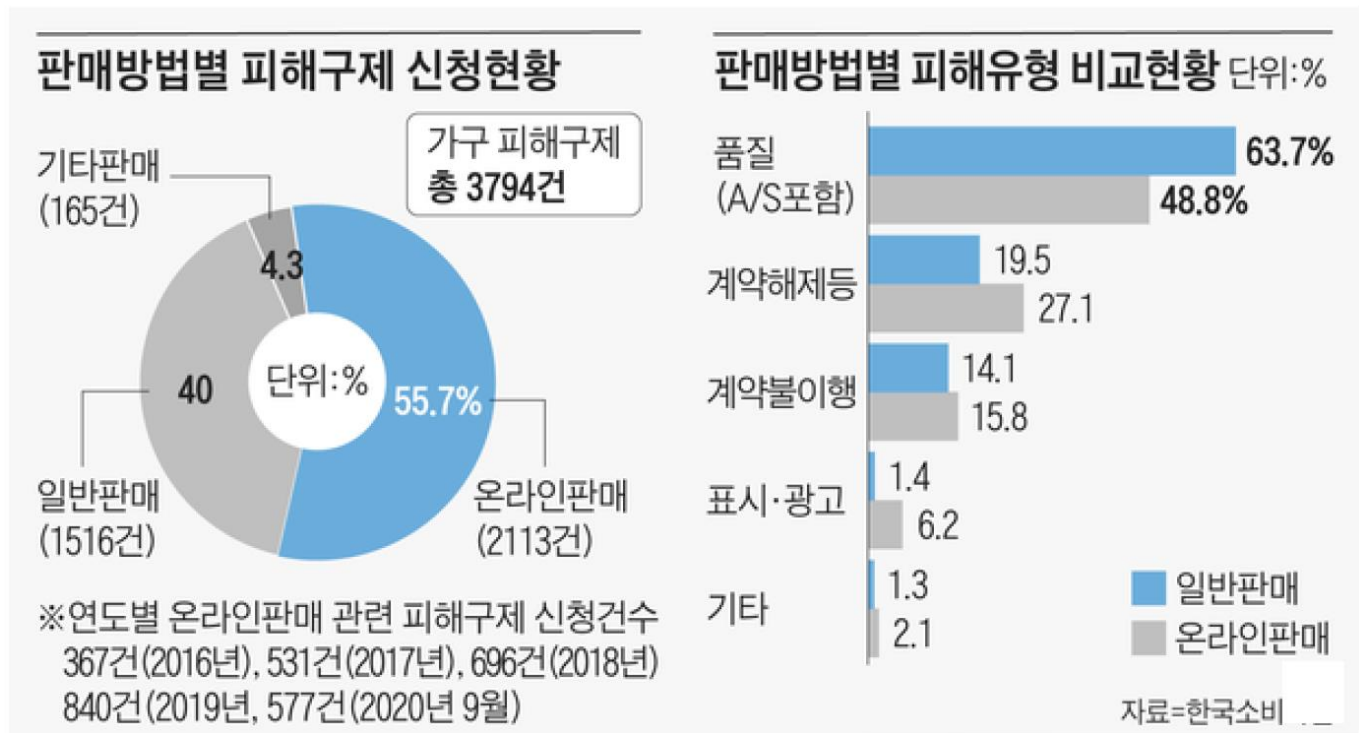
품질 (A/S포함)	계약해제및 청약철회	계약 불이행	표시·광고	기타	계
2096(55.2%)	906(23.9%)	574(15.1%)	154(4.1%)	64(1.7%)	3794(100%)

자료=한국소비

월간 주요 이슈

조선일보 (2020.12.24.)

가장 큰 문제는 품질(55.2%)이었다. 계약해제·청약철회와 관련된 피해(23.9%)도 잦은 편이었다.



오프라인(40.0%) 매장보다 온라인(55.7%) 매장에서 산 가구와 관련된 피해가 더 많았다.

온라인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67건에서 지난해 840건으로 3년 만에 2.3배가 됐다. 올해는 9월까지 577건 접수됐다.

온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27.1%), 실제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6.2%)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비용과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의 경우 배송받은 직후나 조립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02

국내 규제 법령 및 이슈

- 큰 키와 달라진 체형에 맞춰 학생용 책상과 의자 크기 늘리고, 안전성도 강화한다
- 3D 신체 Big data로 군복, 신발 등 맞춤형 軍 보급시대 연다
-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큰 키와 달라진 체형에 맞춰 학생용 책상과 의자 크기 늘리고, 안전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 12. 2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 ‘학생용 책상 및 의자’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체격과 수업 환경 변화에 맞춰 학생용 책상과 의자의 크기를 늘리고 안전성도 강화한다.

❖ 학생용 책상 및 의자(KS G 2010) 개정 배경

- 현행 표준은 2001년에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한 뒤 학생들의 체격 증가와 수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 ‘19년 초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표준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정에 착수하였다.
-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교육청의 학생건강검사 키, 몸무게 자료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15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표준에서 정한 각종 치수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의자의 좌판 길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준에서 정한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가 조사 자료의 엉덩이 너비보다 작은 경우는 48.5%로 과반수의 학생이 자신의 엉덩이 너비보다 폭이 좁은 의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커진 키에 맞는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현재 가장 큰 크기인 6호(키 180cm 기준)보다 큰 치수인 7호(키 195cm 기준)를 신규 도입하고,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를 호수 별로 2~4cm 확대하였다.

- 또한, 학생들의 늘어난 몸무게에 맞춰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 시험 시 사용하는 힘의 세기와 횟수 등의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였다.

* (예시) 책상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사용하는 추의 무게를 기존 45kg에서 60kg으로, 의자의 강도시험과 내구성 시험 시 사용하는 힘의 세기 및 횟수를 각각 1,300N에서 1,600N으로, 12,500회에서 25,000회로 상향

[표] 7호 신규 추가 및 좌판 길이 확대 내용 발췌(단위 cm)

종류		0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신규)
책상	표준 신장	90	105	120	135	150	165	180	195
	책상 높이	40	46	52	58	64	70	76	82
	다리부 최소 높이	-	35	41	47	53	59	65	71
의자	좌판까지 높이	22	26	30	34	38	42	46	50
	좌판 최소 너비	-	26	29	33	36	38	40	42
	좌판 최소 길이(확대)	-	27	29	32	34	36	40	42

- 아울러, 조별 토론수업 등 달라진 수업 환경에 활용될 수 있는 책상 상판의 각도조절, 캐스터 부착 책상, 그리고 발 받침대 부착 의자 등 기능성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추가하였다.

- KS 개정과 더불어 내년 초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차질 없이 KS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개선된 책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상판 각도조절 책상]



[캐스터 부착 책상]



[발 받침대 부착 의자]

3D 신체 Big data로 군복, 신발 등 맞춤형 軍 보급시대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 12. 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대한민국 공군은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3차원(3D) 인체정보 빅데이터 활용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양 기관은 '군수품 발전을 위한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기술교류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협력은 국가기술표준원이 '79년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現사이즈코리아('03~), Size Korea)으로 축적한 3차원 인체정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군에 맞춤형 군수품을 제공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 금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공군으로 '3차원 인체정보 빅데이터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구축된 장병 체형 빅데이터는 군용 사무용 가구 등 군용물자 외에도 항공 장비 헬멧, 전투기 조종석(cockpit)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체격 조건에 맞는 맞춤형 군수품을 보급하고 군수품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 한편, 축적한 장병들의 인체정보 빅데이터는 향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 제공함으로써 섬유, 의류뿐 아니라 헬스케어를 비롯해 다양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군수물자, 특히 피복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장병 인체치수 표준을 활용한 표준 군수품 개발을 지원하고,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KS)을 군 규격에 활용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공군은 인체정보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사이즈 코리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0대 초반의 한국인 체형에 대한 보다 정교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 12. 24.)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 정부 인증제도란?

-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 외에 형식승인, 검정, 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안전, 보건 등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 기회 제공 등 긍정적 측면과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상존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란?

-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한 제도
- 기술규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쏠주기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전관리]

기술규제 영향 평가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 중 불합리한 기술 규제 도입 사전 방지

[사후관리]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개선

-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 (통·폐합 : 7개) 유사 중복 제도 중 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
- (개선 : 20개) 국제기준 및 타 제도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화한 2개 제도,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5개 제도,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13개 제도
- (존속 : 37개) 국민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

❖ 2020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표]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 통·폐합(7개)

No.	소관부처	명칭	구분	결과
1	산림청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임의	폐지
2	산업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임의	폐지
3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임의	폐지
4	산업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의무	통합 (No. 4 폐지)
5	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의무	
6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임의	통합
7	국토부	지능형건축물 인증	임의	

[표]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 개선(20개)

No.	소관부처	명칭	No.	소관부처	명칭
1	과기부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제도 (CC인증)	11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2	소방청	탱크안전성능검사	12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의인증(CCM)
3	국토부	내화구조 인정	13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4	국토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14	행안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5	환경부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15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6	중기부	성능인증	16	환경부	소음도 검사
7	문체부	무대시설안전진단	17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8	산업부	단체표준인증제도	18	산업부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인증제도
9	국토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인정	19	행안부	승강기검사
10	과기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20	해수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 승인·정도검사·검정


03

국내 KC 관련 법령 및 이슈

- 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125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추진성과

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 1. 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 (조사 대상) 관리대상 품목(278개)을 현행 2단계(중점/일반관리)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세분화하여 4단계로 개선하였다.

[2020년도]		➔	[2021년도]	
품목 구분	성격		품목 구분	성격
중점관리	부적합률 상위 등 위해 우려 품목		① 중점관리	2020년과 동일
일반	계절용품 등 중점관리 이외 품목		② 언택트	온라인언택트 관련 수요 급증 제품
			③ 사각지대	최근 3년간 미조사 품목 등
			④ 일반	①, ②, ③ 제외, 기타 품목

- ① (중점관리품목, 50개 지정·관리) 부적합률 및 사고율 등이 높은 품목 50개를 2021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조사·관리한다. (연 2회, 정기조사)

구분	어린이용품(17개)	생활용품(13개)	전기용품(20개)	
관리대상 (50)	유지품목 (43)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학용품, 유모차, 어린이용 자전거 등 16품목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서랍장, 실내용 바닥재, 등 10품목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오븐 기기, LED 등기구, 멀티콘센트, 직류전원장치 등 17품목
	신규지정 (7)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고정식자전거	휴대형 그릴, 전기장판, 누전차단기
제외 (7)	지정해제 (7)	어린이용 물안경,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휴대용 예초기의 날, 헬스기구	전기냉장·냉동기기, 전지

② (언택트 품목, 20개 지정) 실내 여가활동 및 개인 취미활동 등 사용이 많은 제품을 언택트 관련 품목으로 별도 지정하였다. (연 1회, 정기조사)

구분	어린이제품(6개)	생활용품(6개)	전기용품(8개)
대상 품목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키보드,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실내용 바닥재, 이륜자전거, 전기자전거, 헬스기구, 가정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직류전원장치, 발욕조, 전지, 전기마사지기, 후드믹서, 전기식 조리기, 주방용전동기기, 음식물처리기

③ (사각지대 품목, 32개 추가)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미실시, 안전기준 준수대상 위해 우려, 소비자기관 요청 등 신규로 발굴·지정 (연중 정기조사에 포함)

구분	최근 3년간 조사 미실시 제품(21개)	안전기준 준수 위해우려 제품(5개)	한국소비자원 요청 제품(6개)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전자레인지, 전자캐패기 등 4품목 • (안전확인) 이마용기기, 전기보온기 등 7품목 • (공급자) 충전용전동공구, 주류숙성기 등 10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률 미개선 품목) 텐트,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목욕의자, 반사안전조끼 • (유통량 상위품목) 가정용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강화) 미끄럼방지타일, 합성수지제품, 모니터, 침대매트리스 등 4품목 ✓ 신유형문구 등 조사요청 품목(2개)은 수시조사에 반영

- (조사 방식) 안전성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한다.
- (정기조사) 언택트 관련품목을 추가하여 확대 조사(5→6회)
- (수시조사) 국회·언론 등 대외관심 품목, 사회적 이슈 품목 등을 우선 조사하여 정기조사 틈새 보완
- (온라인제품 조사강화)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제품의 조사 비중을 보다 확대(현행 50~60% 수준)

❖ 법·제도적 관리기반 강화

- 유통사 법적 의무 강화
 - (판매중개업자 의무강화) 기본법 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중개업을 추가(법 제3조 ‘정의’ 개정)하여 중개업자 책임성 제고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법제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유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법적 의무화 추진
- 관리원 업무권한 보완
 - (조사권한) 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 및 사업자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사업자 거부 시 벌칙(과태료) 기반 마련

구분	시기
1차	신학기 2월말
2차	언택트 관련 품목 4월 초
3차	중점관리 1차 5월말
4차	여름용품 7월 중순
5차	중점관리 2차 10월 초
6차	겨울용품 12월 초

별첨 2021년 정기 안전성 조사 차수별 일정 및 품목

① 봄·신학기 관련제품(정기 1차)

- (발표시기) 2월 말
- (조사대상) 28개 품목 약 800개 제품

구분	전기용품(11개)	생활용품(9개)	어린이제품(8개)
대상 품목	직류전원장치 전기스탠드 전지 모니터 비디오카메라 새싹 및 콘나물재배기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주류숙성기 전기분수기 전기시계 전기작동도어록	운동용 안전모 휴대용 레이저용품 건전지 일반용자전거 전기자전거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전동킥보드 가정용 섬유제품 침대 매트리스	유아용 의자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아동용 섬유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② 언택트 관련제품(정기 2차)

- (발표시기) 4월 초
- (조사대상) 31개 품목 약 800개 제품

구분	전기용품(18개)	생활용품(7개)	어린이제품(6개)
대상 품목	이미용기기 게임기구 전기오븐기기 전기휴대형그릴 전기 마사지기 후드믹서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기타 전기식 조리기 전지 발욕조 공기청정기(직류전원) 공기청정기(교류전원) 전기 헬스기구 전기 토스터 백열등기구 음식물처리기 직류전원장치 LED등기구	가정용 압력냄비 압력솥 헬스기구 실내용바닥재 일반용자전거 전기자전거 가정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킥보드

별첨 2021년 정기 안전성 조사 차수별 일정 및 품목

③ 중점관리품목 상반기(정기 3차)

- (발표시기) 5월 말
- (조사대상) 37개 품목 약 850개 제품

구분	전기용품(12개)	생활용품(11개)	어린이제품(14개)
대상 품목	직류전원장치 LED등기구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조명기구용 컨버터 멀티콘센트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 휴대형그릴 기타 전기식 조리기 누전차단기 전격살충기 전지 전기오븐기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휴대용 레이저용품 스포츠용 구명복 고령자용 보행차 실내용 바닥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가구 속눈썹 열성형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가족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

④ 여름용품(정기 4차)

- (발표시기) 7월 중순
- (조사대상) 34개 품목 약 800개 제품

구분	전기용품(15개)	생활용품(8개)	어린이제품(11개)
대상 품목	직류전원장치 케이블 전기 냉장냉동기기 전기 건조기 전기 개폐기 전자레인지 전격살충기 리튬 이차단전지 전격살충기(교류전원)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충전용 전동공구 CCTV카메라 라디오 수신기 전기 분수기 전기작동 도어록	물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스포츠용 구명복 건전지 고령자용 지팡이 텐트 반사 안전조끼 고령자용 목욕의자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아용 캐리어 유모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별첨 2021년 정기 안전성 조사 차수별 일정 및 품목

⑤ 중점관리품목 하반기(정기 5차)

- (발표시기) 10월 초
- (조사대상) 42개 품목 약 800개 제품

구분	전기용품(17개)		생활용품(11개)	어린이제품(14개)
대상 품목	직류전원장치 LED등기구 형광등기구 조명기구용 컨버터 멀티콘센트 가정용 소형 변압기 전기요 전기 매트	전기 장판 전기 방석 전기 찜질기 후드 믹서 누전차단기 발욕조 전기 온수매트 체인형 등기구 백열등기구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스포츠용 구명복 고령자용 보행차 기름난로 전동킥보드 가구 속눈썹 열 성형기 LED마스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가족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

⑥ 겨울용품(정기 6차)

- (발표시기) 12월 초
- (조사대상) 33개 품목 약 750개 제품

구분	전기용품(17개)		생활용품(7개)	어린이제품(9개)
대상 품목	직류전원장치 LED등기구 핫플레이트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토브 전지 전기온수매트 체인형등기구 백열등기구 폐열회수환기장치 전기보온기 전기가열기기	헬스기구 기름난로 온열팩 일반용자전거 미끄럼방지타일 가정용섬유제품 고령자용 지팡이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구 기타 어린이제품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125만 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 12. 2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 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1~ 12.11., 31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 온열팩, 전지, 완구, 체인형 조명기구, 전열기구 등 5개 품목 272건 272만점 대상

-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 보류함으로써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적발되었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천여점, 완구가 9천여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 또한,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했다.
-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구분	난방용품	선물용품	합계
적발건수	39	21	60
적발수량	1,244,418	10,041	1,254,459

구분		적발건수(적발수량)
적발 유형별 조사결과	인증미필	29(144,541)
	허위표시	2(97,002)
	표시사항위반	29(1,012,916)
합계		60(1,254,459)

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추진성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 12. 3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를 집계한 결과, 제품 안전인증·확인 건수('20년 말 기준; 누적)는 총 245,325건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3,005건으로 작년보다 줄었다고(△10.7%) 밝혔다.

-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12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 '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292건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5,246→5,292건)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대폭 줄었고 (445→329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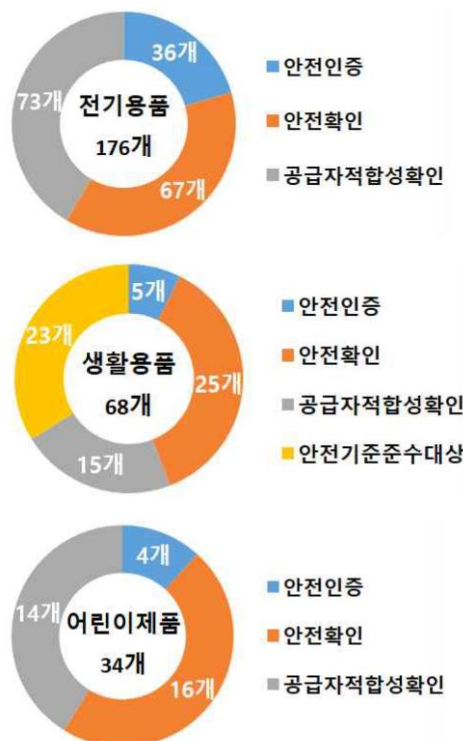
* (2018) 40.6% → (2019) 45.5% → (2020) 54.3%

-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으며,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9.12.)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 제품안전 인증제도 현황

- (현황)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20년 제품안전관리 품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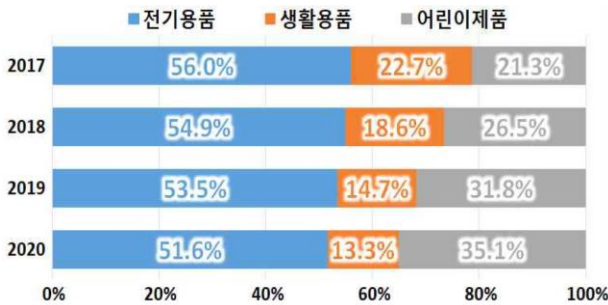


- (안전인증·확인 현황) '20년 말 기준 안전 인증 및 확인 건수(누적)는 245,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도별 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



[연도별 품목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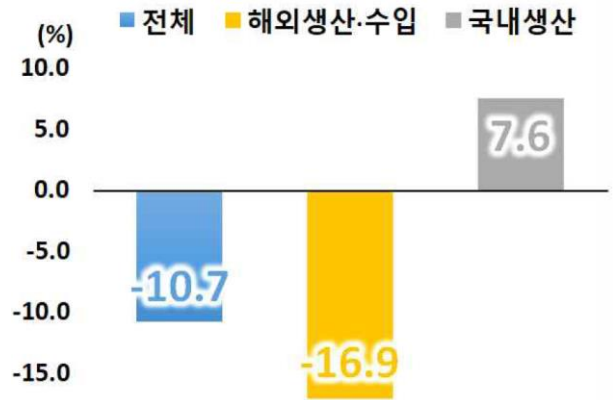


- ('20년 신규취득 현황) 안전인증·확인 신규취득 건수(33,005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2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 (△10.7%),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줄고 (△16.9%), 국내생산 건수는 늘었다(7.6%).

[연도별 안전인증 및 확인 신규취득 현황]



[전년대비 '20년 신규 인증취득 증감율]



❖ '20년도 제품 리콜 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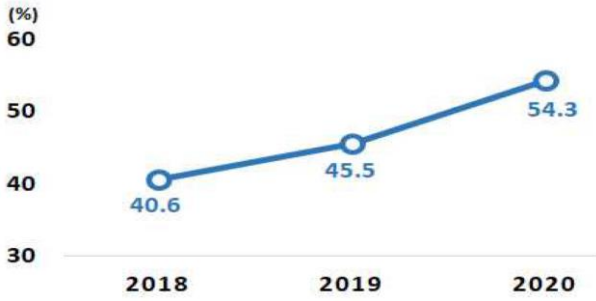
- (안전성 조사) 시중 유통제품(5,292건)을 조사한 결과, 완구등 불량제품 329건을 리콜조치(리콜명령·권고)하였으며, 리콜조치율(6.2%)은 작년보다 줄었다(2.3%p).
- 조사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으나 (5,246→ 5,292건), 리콜조치 건수는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445→329건)에 따라 유통제품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안전성 조사 및 리콜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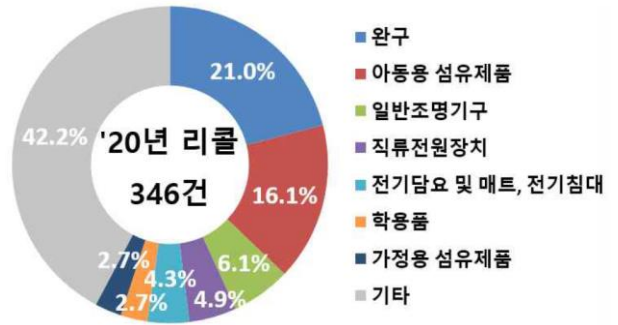


- (리콜제품 회수) 리콜조치된 제품의 회수율은 54.3%로, 3년째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등 법·제도개선 효과로 보인다.

[연도별 리콜제품 회수율]



['20년 품목별 리콜 현황]



[품목별 리콜제품 회수율]



[연도별 품목 비율 현황]

- (리콜현황) 리콜은 정부 안전성조사를 통한 ① 리콜명령(최종결함), ② 리콜권고(중결함),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여 실시하는 ③ 자발적 리콜이 있다.
- (품목별 현황) '20년 리콜품목 중 어린이 완구 (21.0%)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안전인증 및 확인 신규취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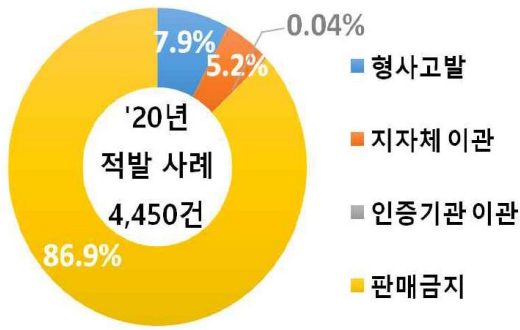
[연도별 불법·불량제품 조사 현황]



❖ '20년도 불법·불량제품 신고 현황

- (불법·불량제품 신고) '20년 한국제품안전 관리원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8,206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450건으로 작년보다 늘었다.
- (조치)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3,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 하였다.
- * 불법제품 :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한 제품
- * 불량제품 : 인증 등을 받았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 미표시 제품

[불법·불량제품 조치 현황]



[연도별 수입제품 조사 현황]



- (업종별 현황) '20년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2,866건, 64.4%)가 제일 높고, 구매대행업체(1,171건, 26.3%), 수입업체(239건, 5.4%), 제조업체(156건, 3.5%) 순으로 다수 적발하였다.

[연도별 위반업종 현황]



- (평가) 이는 국민들의 제품안전 인식 강화로 KC 미인증 제품 의심 신고 및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년도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황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5,315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193건 3,850,000여점의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하였다.
- 올해 조사건수(5,315건)는 작년(4,759건)보다 늘어났으나(11.7%), 적발건수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적발율 Δ 2.7%p 감소), 통관단계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계획)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발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때에 제품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KC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내년에도 “실내여가제품 등 비대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는 제품 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04

해외 규제 법령 및 이슈

- [일본] 합성섬유 솜의 보온성 시험 JIS 제정
- [미국] CPSC, 소비자 안전 경고 - 18650 리튬 배터리 오용
- [미국] 의류 산업 동향
-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에 따른 섬유산업 영향
- RCEP 발효 시 섬유산업 영향

[일본] 합성섬유 솜의 보온성 시험 JIS 제정

BOKEN TOPICS No.242 (2020. 12. 24.)

 2020년 12월 21일, JIS L 1953 「합성섬유 솜의 유효 열전도율에 의한 보온성 시험 방법」이 제정되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섬유제품은 주로 공기를 포함한 것으로, 신체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단열시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생지원단에 대한 보온성 시험은 존재했으나, 합성섬유 솜의 보온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21일 JIS L 1953 「합성섬유 솜의 유효 열전도율에 의한 보온성 시험 방법」이 제정되었다.

시험방법은 **솜의 유효 열전도율을 측정하고 보온성지수로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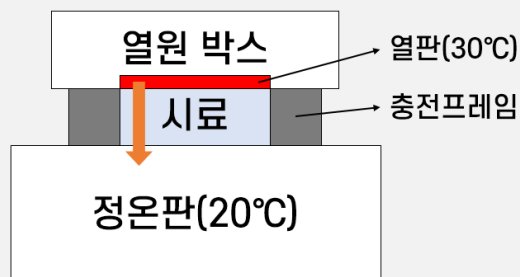
1. 비체적의 측정

필파워 성능 및 형상이 다른 솜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기 위해, 측정 프레임에 약 10g의 솜을 충전하고 규정된 하중판과 추를 올렸다 뺐을 때의 높이를 측정하여 비체적(V)을 산출한다.

2. 유효 열전도율의 측정

① 1.에서 산출한 비체적 값으로 측정에 사용하는 솜의 질량을 산출하고 충전 프레임에 충전한다.

② 20°C로 설정한 정온판 위에 ①의 충전 프레임을 놓고 충전프레임의 윗면에 열판을 아래로 한 상태로 30°C로 설정한 열원 박스를 올린다. 10분 경과 후부터 1분간 1초마다 소비 전력을 측정한다.



③ 다음 식에 의해 시료의 유효 열전도율(λ)을 측정한다.

$$\lambda = \frac{W \times D}{A(T_1 - T_2)}$$

- λ : 유효 열전도율 (W/(m·K))
- W : 소비전력의 평균값 (W)
- D : 충전 프레임의 높이 (0.02m)
- A : 열판 면적 (0.01m²)
- T₁ : 열원 박스의 측정 전후 평균 온도 (°C)
- T₂ : 정온판의 측정 전후 평균 온도 (°C)

④ ①~③과 똑같은 순서에 의해 기준물질 (JIS A 9511의 [표 1]에 규정하는 제품기호 [EPS-B-특] 폴리스타이렌 폼 보온재)의 유효 열전도율 λ_0 를 측정한다.

3. 보온성 지수의 산출

2.에서 산출한 유효 열전도율로부터 다음 식에 의해 보온성 지수를 산출한다.

$$H_R = \frac{\lambda_0}{\lambda_1}$$

- H_R : 보온성 지수
- λ_1 : 시험편 솜의 유효 열전도율 (W/(m·K))
- λ_0 : 기준물질의 유효 열전도율 (W/(m·K))

[결과 해석]

H_R 값이 높을수록 따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본 규격은 최종 제품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없음.



[미국] CPSC, 소비자 안전 경고- 18650 리튬 배터리 오용

CPSC Newsroom (2021. 01. 08.)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분리 가능한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하였다.

-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은 배터리 팩의 산업용 부품으로 제조되며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나, 분리 및 재포장된 리튬 배터리가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 보호 장치가 없는 충전식 리튬 전지(장치에 설치되지 않았거나 통합 배터리의 일부("loose cells"))는 장치를 취급, 운반, 보관, 충전 또는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위험하다.
 - 특히, 이러한 배터리 셀은 노출된 금속 양극 및 음극 단자가 있어서 열쇠 또는 주머니 속의 금속 물체와 접촉 할 때 단락이 될 수 있다.
 - 단락 시 셀이 과열되어 셀 내부 물질에 불이 붙고 연소 내용물이 강제로 배출되어 화재, 폭발, 심각한 부상 및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소비자가 셀 사양을 초과하는 부적절한 충전기에서 사용 시 셀이 비정상적으로 과열 될 수 있다.
- 최근 소형 선풍기, 헤드 램프 및 일부 장난감과 같은 소형 생활제품의 전원으로 18650 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다.
 - 18650 제품은 지름 21 mm, 높이 70 mm 원통형 배터리 셀로, 제조사가 배터리 사양에 맞지 않게 전자담배나 장난감 등에 사용하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 CPSC는 eBay를 포함한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 이러한 셀 판매자 목록을 확보하여 엄중 경고하였으며, 재사용 18650 리튬 이온셀을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에 안전 경고를 발효하였다.
 - 안전한 고사양 배터리의 안전에 대한 정보는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Voluntary-Standards/Topics/Batteries/>

[미국] 의류 산업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12. 22.)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 의류 업계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으나, 지속되는 애슬레저 트렌드와 실내생활의 증가로 라운지웨어 분야가 시장의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 애슬레저(Athleisure)란 애슬레틱(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로, 일상에서도 활동을 즐기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뜻하는 패션 용어다.

❖ 산업 특성

- (의류 생산업 동향) 여성·여아·영유아용 의류
 - 2019년 해당 의류 생산 시장의 규모는 약 32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약 26억 1000만 달러 규모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해당 시장은 연평균 -11.9%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되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은 급격한 성장 하락세를 서서히 회복하며 연평균 0.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값싼 인건비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의류 공급 시장의 특성상, 대다수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 부문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 그 외 미국 내 의류 생산업계에서는 패스트 패션 아이템보다는 '하이엔드(High-end)' 디자인의 의류 제품 생산에 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소비자 가처분소득이 상승하면서 해당 업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저가 수입산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진입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산업의 특징 중 하나이다.
 - 미국 여성 및 아동용 의류 생산업 시장 내에서는, 블라우스·셔츠 등의 상의가 전체 시장 중 가장 큰 약 2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드레스류가 약 26%를 차지한다.

▪ (의류 생산업 동향) 남성 및 남아용 의류

- 해당 시장의 2019년 시장 규모는 약 16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에는 약 11억 2100만 달러 규모로의 감소가 예상된다.
- 여성 및 아동용 의류 생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남성 및 남아용 의류 생산 시장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7.2%라는 마이너스 연평균 성장세를 보였으며 향후 5년간은 연평균 3.4% 성장해 시장 규모를 다소 회복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 전반적으로는 여성 및 아동용 의류 생산업계와 동일하게 수입산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남성 정장이나 프리미엄 데님 등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보다는 ‘품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 정장 및 코트 제품이 해당 시장의 약 31%를 구성하며 셔츠 등의 상의가 약 25%, 업무용 의류가 약 24%를 차지한다.

▪ (의류 생산업 동향) 주요 기업

- 미국 의류 생산업계는 소규모 기업들이 낮은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메이저 플레이어 기업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여성의류 생산업계의 주요 기업으로는 ‘American Apparel’ 브랜드를 소유한 Gildan Activewear Inc.와 미국 대형 의류 판매점인 Sears 납품용 의류 생산을 도맡고 있는 Kellwood Company를 들 수 있다.

- 남성의류 생산업계의 경우, 남성용 고급 정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인 Brooks Brothers Group Inc. 와 Calvin Klein·DKNY·Tommy Hilfiger 등의 캐주얼 의류 생산 기업 PHV Corp.가 주요 기업으로 꼽힌다.

▪ (의류 유통업 동향) 도매업 현황

- 미국 여성 및 아동의류 도매업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816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남성 및 남아용 의류 도매시장의 2019년 시장 규모는 약 546억 1300만 달러로 집계된다.
- 의류 생산업계와 유사하게 도매업계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큰 시장 규모 하락세를 겪으며, 2020년 말 기준 여성 및 아동의류 도매업의 경우 약 750억 1100만 달러 규모, 남성 및 남아용 의류 도매업의 경우는 약 480억 6500만 달러 규모로의 감소가 예상된다.

▪ (의류 유통업 동향) 주요 기업

- 미국 의류 도매업계에서는 Ralph Lauren Corporation, VF Corporation 등이 주요 기업으로 꼽힌다.



❖ 주요 이슈

■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 입은 의류 업계

- 미국 의류업계는 팬데믹이 휩쓴 올 한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로 분석된다.
- 올해 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비필수 업종의 매장들은 문을 닫아야 했으며, 이에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등 패션 의류 업계 소매점들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 팬데믹의 유행과 장기화로 인해 지역마다 각종 락다운(Lockdown) 규제들을 시행한 가운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공부하며 집에서 여가 또한 보내게 되었다.
- 이러한 실내생활의 증가는 직장·학교·외부 행사 등 때와 장소에 맞는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급감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처럼 전반적으로 감소한 수요로 인해 의류 생산·유통·판매업계 모두에서 매출 하락세를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의류 업계에서도 주목 받는 ‘지속가능성’

- 미국 의류 및 패션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큰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 의류 업계에서 바라보는 지속가능성이란 단순히 친환경적인 생산이나 원료의 사용 등을 넘어서 제품을 제작·판매·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자원 낭비와 노동 착취 등의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트렌드로서, 이는 의류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또한 동참 중인 트렌드라 할 수 있다.

- 특히 미국의 핵심 소비자층인 밀레니얼 및 Z세대 소비자들은 의류 구매 시 환경친화적인 섬유, 내구성이 좋아 오래 입을 수 있는 소재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이들은 유행에 따라 잠깐 입고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구매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활성화가 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인식하며, ‘지속 가능한’ 의류 소비를 실천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Gap, Banana Republic, Old Navy, Athleta, Madewell, Levi’s, North Face 등 미국의 주요 의류 브랜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인 H&M에서도 지속가능성 실천을 위한 나름의 세부 목표들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실천 브랜드로는 Everlane, Patagonia, TOMS, Reformation, Allbirds, Marine Layer 등을 들 수 있다.

❖ 진출 전략

■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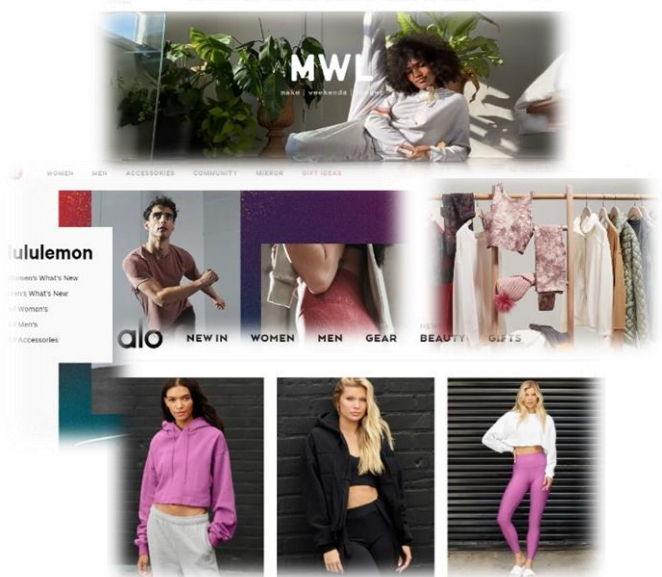
구분	내용
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 및 상품 집중도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 내 경쟁 심화 • 단위 매출 당 이윤의 폭이 낮은 편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가치분소득의 증가 • 지속가능성 중시, 애슬레저 트렌드의 인기 지속 등 새로운 업계 트렌드로 인한 수혜 가능성 존재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 시기적 이슈에 따른 영향 막대 •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수입산 제품과의 막대한 경쟁 지속 • 팬데믹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자 지출 감소

■ 유망분야 - ‘라운지웨어(Loungewear)’

- 집안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일상복을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라운지웨어’에는 스웨트 팬츠나 레깅스에서부터 홈드레스·파자마와 같은 슬립웨어까지 간편한 실내복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자택 대기령(Stay-at-home order) 및 비필수 업종 영업활동 중단(Shutdown) 등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에 심화됐던 이러한 규제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으나,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락다운 규제가 부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재택근무, 가정학습 및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는 상황이며, 실내 생활이 급증함에 따라 재택근무·가족과의 시간·휴식 등을 위한 시간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라운지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집에서만 입는 옷에서도 스타일을 챙기고자 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편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스타일을 갖춘 라운지웨어 아이템이 최근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 실내생활 증가 및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의류 업계 내에서도 라운지웨어 분야의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

■ 유망분야 - ‘애슬레저’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미국 소비자의 패션이 캐주얼화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집안에서의 간단한 운동이나 장보기와 같은 필수적인 외출 시 착용하기에 편안하면서도 스타일 리치한 애슬레저 스타일의 의류는 당분간 그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애슬레저 트렌드를 표방하는 많은 스포츠 의류 브랜드의 인기로 증명되고 있으며, 최근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애슬레저 스타일의 패션 브랜드로는 Lululemon, Athleta, Alo Yoga 등이 꼽힌다.
- 팬데믹의 재확산 속에서도 식료품 구매나 운동·산책 등의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외출은 계속되기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트렌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 특히 냄새 방지·습기 흡수·고기능 스트레치·자외선 차단성 등의 기능성 의류 제품은 애슬레저 트렌드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에 따른 섬유산업 영향

섬유산업 FTA 지원센터 (2020. 12. 29.)



한-영 FTA 원산지기준 및 양허수준을 한-EU FTA 수준으로 타결하였으며, 브렉시트 이후 對영국 섬유류 교역에는 영향 없다.

❖ 브렉시트 추진경과

- 영국과 EU 양측정상의 서명과 유럽의회비준 완료('20.1.29)
- * '20.12.31일까지 한시적 이행기간 설정
- 브렉시트(Brexit)를 위한 미래관계 협상 타결 ('20.12.24)
- * 2021.1.1. 브렉시트 및 한-영 FTA 발효

❖ 한-영 FTA('19.6.10 원칙적 타결) 주요 내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유지를 위해 원산지규정 및 상품관세 양허는 한-EU FTA 수준으로 타결
- * 섬유산업의 원산지규정은 이중변형기준, 양허수준은 즉시철폐 적용
- 3년 한시적으로 ①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 ② EU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해도 직접운송으로 인정

❖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영 FTA에서도 섬유류 품목은 무관세이다.
- 원산지 예외 쿼터제도*는 축소(HS 4단위 기준 9개품목(한-EU)→1개품목(한-영))되었으나 영향은 미미하다.
-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며 연간 쿼터 범위 내에서 허용
 - 한-EU(9개 품목) : 면사(4품목), 인조스테이플사(4품목), 재생장섬유직물(1품목)
 - 한-영(1개 품목) : 재생필라멘트직물

[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의 적용 사례

구분	원산지 기준 (원칙)	쿼터에 의한 완화 (예외)
재생/반합성직물 (HS5408)	역외산펄프용매 →방사 →아세테이트사 →제직	역외산 아세테이트사 →제직 →아세테이트직물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HS5510)	역외산펄프용매 →방사/기공 →비스코스레이온섬유 →방직 →비스코스레이온사	역외산 비스코스레이온섬유 →방직 →비스코스레이온사

RCEP 발효 시 섬유산업 영향

섬유산업 FTA 지원센터 (2020. 12. 21.)



RCEP은 기 발효중인 한-아세안 FTA 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낮으나 일부 원부자재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단축 등으로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CEP 추진경과

- ‘12.11 협상개시
- ‘20.11.15 15개국 정식서명(아세안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 * 對세계 비중 : GDP 26.3조 달러(30%), 인구 22.6억 명(30%), 교역 5.4조 달러(28.7%)
- * 對RCEP 섬유교역 비중 : 전체섬유 수출은 56.0%, 수입은 79.4%
- * 체결국들은 자국내 국회동의 등 비준절차 진행 후 체결국들간의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발효(‘21년 말 예정)

❖ 섬유협정 주요내용

- (원산지 기준) 섬유원산지 기준은 ‘17.11월 한국, 중국, 일본의 섬유업계가 합의한 원산지 기준안이 전면 반영된다.
- (관세철폐) 일본을 제외한 13개 국가와는 이미 높은 양허수준의 FTA가 체결되어 RCEP의 시장개방 효과는 미미하다.

- (한일 관세양허) 한·일간 섬유분야는 상호보완관계에 있고 일부품목에 대해 일본의 즉시 철폐로 시장접근 확대가 가능하다.
- (중국의 對한국 관세양허) 한국산 섬유에 대해 RCEP이 시장개방 속도면에서 한-중 FTA 보다 느려 對중국 섬유수출시 기존 한-중 FTA 활용이 관세혜택에 유리하다.

❖ RCEP 발효에 따른 영향

- (일본) 일본과는 최초의 FTA 체결로,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직물, 폴리에스터단 섬유, 폴리에스터FDY, 코팅직물 등은 RCEP 발효 후 對日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되어 對日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 (중국) 섬유산업의 민감성이 반영되어 기체결 FTA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여, 우리기업은 대중국 섬유교역시 RCEP 보다는 한-중 FTA 활용이 관세혜택 면에서 유리하다.

관련연락처 Contacts

부서	담당자	업무	전화 / 이메일
글로벌사업팀	홍윤기 수석연구원	미주, 유럽 규제 및 시험 상담	7074 / yk_hong
글로벌사업팀	강윤석 선임연구원	일본 규제 및 시험 상담	7433 / ys_kang
섬유생활제품팀	권진경 선임연구원	국내 규제 및 시험 상담	7443 / jk_kwon
섬유생활제품팀	도영은 연구원	보고서 작성 및 편집	7076 / yedo
제품안전분석팀	정유영 선임연구원	CPSIA 완구 및 어린이제품	7192 / yyjung
제품인증팀	유형진 책임연구원	KC 법령 및 규제 상담	7057 / hjyoo

- ◆ 전화 : 02-3451-
- ◆ 이메일 : @kr.kotiti-global.com

KOTITI시험연구원은 1961년 설립된 최초의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서 소비재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품질검사,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6개국, 12개 지역에 해외 법인과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중 4개 지역에는 시험실을 운영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근접 지원과 반세기 동안 축적한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 의

1.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KOTITI시험연구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KOTITI시험연구원의 동의 없이 재생산, 배포,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본 보고서는 상업적 또는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KOT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www.kotiti-global.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2201kim>